

소망의 언덕



최정원 목사
광주성상교회 담임

나는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을 만나면 묻는다.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무엇이 제일 좋습니까?”라고 묻으면 새벽예배에서 해방되어 좋다는 분이 가장 많았다. 물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중압감에서 해방된 모습의 표현일 것이다. 두 번째는 교회나 성도들을 신경 쓰지 않으니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졌다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 중에 제일 알권은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 실방을 가지 않아도 되니 정말 좋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인생도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살 수 있는데 하물며 특별 헌정에서 내가 가고 싶은 사람만 실방할 수 있겠는가. 많은 경우는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 실방을 해야 하는데 은퇴를 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 실방을 하는 해방같은 대단할 것 같다. 세상의 수많은 공부

의 무너지는 마음이 성경에 그대로 나온다. “음고 먹지 아니하니”(삼상:7), “하나가 마음이 괴로워”(7절), “민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라”(11절), “하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15절),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16절) 브닌나가 하나님의 아픔과 상처를 따라다니면서 조종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의 육신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나는 조금이나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경험을 오래전에 했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전원을 하다가 들킨 적이 있었다. 사회 과목이었는데 시험에 나올만한 내용을 숙지에 깨알같이 적어 주머니에 넣었다. 감독하던 여자 선생님이 복도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원소를 내려 주머니에서 페이퍼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살펴서 원 소버락으로 덮었다. 그런데 밖에 나갔던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그리고 내가 앉은 줄로 오시더니 내 옆에 멈춰서서 내 원소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폐곡이 적은 천년 페이퍼가 있는데 말이다. 50년이 지난 일이지만 나는 이 일을 어찌 잊지 못할까. 선생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페이퍼를 가져가셨지만 작은 교실 안에 있는 70여 명의 학생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특히 나와는 성적으로 얽혀 있었지만 우리 둘은 친구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날부터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천년소’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단어를 나에게 붙이면서 나를 볼 때마다 내 이름 대신에 ‘천년소’ ‘천년소’로 불렀다. 이제 생각하니 ‘괴롭힘’ ‘괴롭힘’이라고 한 것이다. 내성적이었던 나는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었

나의 브닌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에 사람 공부처럼 어렵고 힘든 것이 있을까. 알면 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어렵고 힘든 공부가 사람 공부 아니겠는가.

북인의 시인 괴테는 “태초에 갈증이 있었다.”는 말로 인간의 역사를 정의했다. 인간 역사는 처음부터 갈증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갈증이 없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삶은 갈증의 연속이 되었고 성경의 이야기기도 갈증의 이야기이다. 선교하다가 갈증을 경험한 바울과 바나바(행15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다가 갈증을 경험한 다윗과 사울, 교회에서 헌신 중성하다가 빌립교회의 갈증의 중심에 섰던 유오디아와 순두께, 삼촌과 조카의 갈증(창13장), 요셉과 형제들의 갈증(창45장), 하나님과 브닌나의 갈증(삼상1장)은 태초에 갈증이 있었고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갈증이 존재함을 말해준다.

삼상1장에 나오는 평범한 열기나 가정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는 첫 번째 부인인 한나가 자식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기를 낳는 두 번째 부인 브닌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학대했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그러나 남편 열기나 마음을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나를 괴롭히는 브닌나는 악함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삼상1:6)라는 이 구절에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격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화를 냈다”는 것을 넘어 계속해서, 만일 때마다 하나님의 악한 아기를 낳지 못함을 조종하고 비방하여 괴롭혔다는 의미가 있다. 적수 브닌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한나

다.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열기에게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결석을 한 적이 있었다. 이제 보니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킨 것처럼, 그 친구는 나를 격분시킨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브닌나는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살든 언제나 내 곁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모하며 기도의 응답으로 입사한 직장에도, 학교에도, 가정에도 심지어 교회에도 존재하는 슬픈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브닌나를 피해서 숨거나 도망쳐서는 안된다. 브닌나가 없는 곳을 찾거나 그리워해서 안 된다. 또한 브닌나를 평생의 대적자로 알고 그를 없애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브닌나는 내가 붙잡고 씨름해야 할 나의 적수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브닌나로 인해서 씨름하고 신음하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 준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역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6:12)

그러면 한나는 브닌나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한다. “하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삼상1:10) 한나는 자신을 대적하고 조종하는 브닌나와의 해결점을 여호와께, 여호와께 가지고 와서 해결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성경은 한나의 이런 기도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밝히 기도”(삼상1:15)라고 했다. 통곡했다는 것은 “마음을 쏟아놓다”, “털어놓다”라는 의미이다. 단언코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되 하나님께 털어놓는 기도를 하면 이 세상 어느 것도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그 상처는 별이 되고 강물이 된다는 것이다.

외무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산책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을 연가꾸 물으셨습니다.(요 21:15~17) 세 번째 같은 질문을 받고 베드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물으셨을 때까지 베드로는 분명하게 사랑한다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잘못 들으셨을 리도 없는데 왜 같은 질문을 또 하십니까? 그 질문은 내면의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그 순간 고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

없이 바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 성가대를 비롯해 직분에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생활도 정성껏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대답을 듣고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우리에게 “너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물어 오신다면, 우리는 그제야 베드로와 같은 당혹감과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원점부터 다시 한번 신앙을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위의 신앙인들이 가는 대로, 그저 관행대로 휩쓸려 지금까지 오지는 않았는지? 나의 믿음은 정당하며 하나님께

충고는 제도를 입고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그랬고, 종교개혁 당시에 구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교개혁 후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조상의 유전을 동일 선상에 놓았듯이, 지금도 교회의 세속적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치될 때 진리보다 자기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지만, 막상 회부 처리된 시작되면 기도 내용은 무관하게 자기 뜻만 관철시키기 위하여 크리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기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지는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 봅니다. 다소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면 어떻게 답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인인가?” 첫 번째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이지요 주님,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매 주일 교회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며, 남부럽지 않게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물어 오십니다.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역시 우리의 대답은 망설임

시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왔는지? 관습이나 전통에 쫓겨서 분별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신중하고도 배아픈 중간 점검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흠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의 질문 앞에서는 대부분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근심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대로는 세상적인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경건을 이익의 재화로 생각한다고 엄히 경고합니다.(딤후 6:5)

지금 시대는 종교개혁 당시와 비교해 보아도 많이 변질된 신앙생활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항상 시간이 지날수록

스전의 본분을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른 일상을 멈추고 한 번쯤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깊은 묵상 가운데 자신에게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봅시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임석인 목사
광주성상교회 담임

외무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너의 이름을 부른다

자녀를 위한 매일기도 6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5:10)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잠시 잠깐인 인생을 사는 동안 세상의 삶이 보이는 것들에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에 힘쓰다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여러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지는 위 글을 편집과 함의를 거쳐 인쇄한다.(편집권: 김민준 / 박은주)

노불요양병원

밝은마음병원

의료선교병원
나사렛요양병원

매일 드러지는 예배와 현대의학이 접목된 나사렛요양병원은 전인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선교병원입니다.

진료과목

뇌출혈, 뇌경색, 치매, 정신건강, 한방치료
재활치료, 노인만성질환전문

58228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50
 직통 : 061) 339-9905, FAX 061) 334-2345
 이사장 - 강봉규 목사 TEL 010-2604-0560
 상 담 - 김성기 사무국장(집사) TEL 010-7676-6706
<http://peacemind.co.kr>